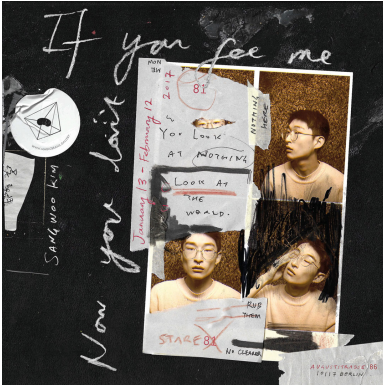


김상우 개인전

IF YOU SEE ME NOW YOU DON'T



Magic Beans 갤러리는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김상우의 첫번째 개인전 'IF YOU SEE ME NOW YOU DON'T' 을 개최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패션 모델로 더 익숙한 김상우는 이번에 자신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예술작품으로 투영시킨 페인팅, 사진, 비디오 작업 등을 선보이며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이 이민자 2세로서 상충된 문화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였던 개인적인 이슈들을 작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어둡고 무거운 주제가 작품으로 표현됨에 있어서는 시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유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상하면서도 상반되는 감정'은 감상자를 자극하는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어져 '무엇을 바라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민자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란 김상우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모습과 생활방식이 서구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으며, 유년기에 경험하였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는 그에게 심한 괴리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서구문화 속에서 '이방인' 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그의 성장기간 전반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과거의 작업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텍스트화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기에 혼란스러워하며 겪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상고합니다. 시각적으로는 텍스트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향수와 회상으로 뒤섞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작가의 과거의 정보들에 대한 자학적인 파괴행위는 그 자신의 파편화 되어져 형성되어진 정체성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수많은 개개인들을 구조적으로 엮여 공중파로 흘러 보내지는 소셜 미디어 속에서 쪼개지고 뒤섞여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김상우 작품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그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추상적인 페인팅들은 마치 1950년대에 감정의 폭력성을 뿜어내었던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작품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화면 위에 정체성이 담겨있는 문장들은 의도적으로 덧칠되어 뭉개지고, 질감이 더해져 가며 텍스트에 숨어있던 어두운 요소들은 점점 사라져 가며 추상화 되어져 관객들과의 소통은 더욱 편해져 갑니다. 예를 들면, 그의 페인팅 'Easy on the eye - 보기에 좋은 것' 에 적혀있는 '나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없는 눈 뜬 장님과도 같았다. 마치 관음증 환자들이 쳐다보는 대상처럼 말이다...' 이라는 문장을 부분적으로 지우고 뭉개며 추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한 점의 추상화처럼 보이게끔 재구성 하였습니다.

김상우의 작업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이 그 대상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의 자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던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